

GMP 귀국 보고서

인적사항

성명	권대은	학번	
이메일	dekwon09@gmail.com		

대학원명	(대학원 / 전공) SDA Bocconi / 행정학(MPA)	(국가) 이탈리아
기 간	2016. 9월 ~ 2017. 8월	[귀국일: 2017년 8월 22일]
첨부서류	GMP 2년차 보고서	

본인은 **GMP 2년차** 과정 수료 후,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교학처장 귀하

2017년 9월 21일

신청인 : 권대은 (인)

1. 초기 생활적응

- **기후:** 4계절이 있으며,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나, 우기인 10월~2월에는 비가 자주 옵니다.
여름은 건조하여 체감온도는 우리나라보다 낮으며, 겨울은 우리나라보다 온화한 편임
- **지리적 위치:**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 위치하며, 스위스, 프랑스 남부와 가까운 편임.
교통의 요지로서 기차, 항공, 도로를 통해 유럽 주요도시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함
- **생활관련 사항**
 - 도착하면 가장 먼저 Agenzia delle Entrate에 Codice Fiscale (세무번호) 발급 신청을 해야 함
(체류허가, 보험가입, 부동산계약 등 각종 신청과 계약을 위해 필요함)
 - 그후 Poste Italiane (우체국)에서 Permesso di Soggiorno (체류허가증) 신청을 해야함. 발급까지는 보통 수개월~1년이상 걸리며, 발급 전까지는 신청 영수증을 임시 허가증으로 활용함
 - 시내 휴대폰 매장(보다폰, Three, Tim 등)에서 현지 번호 개통 가능함 (유심칩 교환방식)
 - 주거지는 현지 부동산이나 현지 한인들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음
 - 중앙역 근처에 한인 마트가 있으며, 차이나타운에서도 한국 및 아시아 식재료 구입 가능
 - 경제중심지로서 이탈리아 다른 도시에 비해 주거, 외식비 등 생활비가 높은 편임
 - 대형 슈퍼마켓(에셀롱가, 까르푸, 심플리 등)에서 식자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
 - 대도시로서 지하철, 버스, 트램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버스의 경우 24시간 운영됨
 - 주요 지하철역에 있는 밀라노 교통공사(ATM) 창구에서 월정액 교통카드 구입 가능
 -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Tabacchi (담배가게)에서 교통권, 정부 수입인지 등을 살 수 있고, 각종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음
 - 일부 외곽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치안이 좋은 편임. 두오모 등 중심지에서는 상품(팔찌, 비둘기 모이) 강매나 소매치기를 주의해야 함

2.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

- SDA Bocconi 학교 자체는 이탈리아 및 유럽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영대학원임
- 다만, 행정학석사(MPA) 과정은 경영학(MBA) 전공에 비해 역사가 짧고,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에 있어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인상임
- 강의 내용은 대체로 학부 전공과목 수준이었으며, 새로운 이슈나 실무적인 주제들은 세미나 및 외부인사 초청강의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

3. 수강신청 및 이수에 관한 경험, 평가, 제언

- MPA 과정의 공통과목(10월~3월)은 수강과목이 정해져 있고, 학생에게 수업 선택권이 없음
- 후반기(3월~5월)에 진행되는 심화과정은 각 블록별로 1개의 과목을 택하도록 되어 있음
- Block A (도시경영/국제기구경영), Block B (기업-정부관계/문화예술경영)
- 학점은 High pass, Pass +, Pass, Low pass, Fail로 구분됨
- Fail을 받은 경우 재시험 기회를 주는 등 학점 부여는 관대한 편임
- 개강 초기에 수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, 한 과목을 단기간에 속성으로 진행하여 학습 효율이 떨어지므로 학사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함

- GMP의 경우, 2년차 가을학기에 KDIS로 복귀를 하는데, SDA Bocconi의 졸업식이 2년차 12월에 예정되어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

4. 주거 및 음식에 대한 평가, 제안

○ 주거

- 밀라노 시내는 주거비가 상당히 비싼 편임. 도심에서 차로 20~30분 정도 걸리는 방1, 주방1, 욕실1인 집이 월 700유로(전기료, 가스비 별도) 였음
- 주거지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, 단기방이나 호텔방을 잡고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음. 단기방은 이탈리아 한인 카페나 에어비엔비 등을 활용해서 구하는 것이 편리함
- 집은 부동산, 한인카페, 직거래사이트(<https://www.kijiji.it/case/>)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음
- 부동산을 통하면 편리하나 수수료가 비싼 편임(중계료 보통 2달치 월세+부가세). 한인카페나 직거래사이트는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문제 발생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
- 학교 기숙사는 학부생 및 MBA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 경쟁이 심함. 입학허가를 받으면 최대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

○ 음식

-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은 파스타, 피자이며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편임
- 아침식사는 카페에서 에스프레소와 빵으로 가볍게 먹는 것이 일반적임
- Bocconi 대학 도서관 지하의 카페테리아에서는 점심에 각종 파니니와 피자, 파스타, 샐러드, 스테이크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
-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자리값으로 1인당 1~2유로를 받으며, 물값도 별도로 내야 함. 물은 일반 생수(aqua naturale)와 탄산수(aqua frizzante)로 구분됨
- 이탈리아식 코스요리는 Anti pasti (전채요리) – Primi piatti (주로 파스타나 리조또) – Secondi piatti (생선이나 육류) – Dolce (후식) – Café (커피)로 구성됨
- 저녁 6시~7시 정도에는 Apperitivo라고 하여 저녁식사 전에 식전주로 와인 또는 칵테일 등을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마심. 밀라노 지역은 이러한 Apperitivo가 특히 발달하여 Naviglio 운하 등 일부 지역에는 Apperitivo를 뷔페로 제공하는 식당들이 밀집해 있음
- 식당의 수준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외식비가 비싼 편이므로 슈퍼마켓에서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조리해 먹는 것이 합리적임
- 특히, 프로슈토(이탈리아식 햄), 각종 치즈, 와인 등은 슈퍼마켓에서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

5.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

- 밀라노는 유럽의 교통 중심지로서 유럽 여행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음
- 저가항공, 철도, 장거리버스를 잘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지역을 여행할 수 있음
- 5월~8월까지의 여행 성수기이므로 이 시기를 피해 가급적 많은 곳을 다니는 것이 좋음
- 항공권은 일찍 구매할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므로 여행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항공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음

- 에어비앤비 등 숙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면 호텔보다 저렴하고 숙소를 구할 수 있음
- 북유럽은 겨울이 길고 매우 추우며 낮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음. 도시마다 고유 축제나 행사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방문하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음
- 박물관, 미술관 등에서는 학생 할인제도가 있는 곳이 많으므로 여행시 학생증도 챙겨가면 도움이 됨

6. 경험에 대한 전반적 평가

-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유럽에서의 생활은 장단점이 있음. 풍부한 역사적, 문화적 체험과 인류의 유산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, 도시 인프라나 행정 서비스 등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, 최근에는 테러 위험까지 고조되어 이를 감수해야 함
- 전반적으로는 여러 도시를 둘러보면서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접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음

7. 비자, 출입국, 기타 해외생활 정보

- 비자는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,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함. 전화 통화가 잘 되지 않는데, 이메일을 보내면 늦게라도 답장을 보내줌.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가 많아서 사전에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문의하고 가는 것이 좋음
- 공무원 국외연수의 경우 예전에는 공무비자를 발급해주었다고 하나, 최근 규정이 바뀌어 유학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함. 이 경우 동반 가족이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움
- 비자 발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,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잦으므로, 입학허가를 받고 출국일이 정해지면 비자 신청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음
- 비자 신청시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데, 비자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일 전까지 비자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
- 일단 비자를 받은 후에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간의 출입국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됨
- 이탈리아에 입국한 후 쥬겐조약 국가 내에서의 이동은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어 편리하나 그외 국가로 이동시 출입국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야 함

8.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

- 이탈리아는 유럽 역사, 문화, 예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유학처라고 할 수 있음
- 다만,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느리게 돌아가며,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, 영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등 불편한 점이 있음. 또한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영미권 국가에 비해 선택권에 제약이 있음
-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연수지 결정을 하고, 이탈리아로 가기로 했다면 최대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을 것임
- 패션, 디자인, 식음료, 문화 관광, 스포츠 등 이탈리아 및 밀라노지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함